

## 아동공동생활가정 시설장의 역할수행에 대한 탐색연구

### An Explorative Study on the Role Performance of Child Group Home Directors

이슬기(Seulki Lee), 양성은(Sungeun Yang)\*

Department of Child Studies, Inha University

---

####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oles of child group home directors and their experiences with children. The study utilised the interpretive science paradigm and individual in-depth interviews for data collection. The qualitative theme analysis method explored the experiences of child group home directors. The participants, seven group home directors in the metropolitan area of Seoul, explained their multiple roles such as protector, nurturer, discipliner, mediator, and supporter of children while recognizing dysfunctions of children's family of origin. Participants claimed that the specialization of the child group home and the professionalism of its staffs were needed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child welfare. The results of this study might contribute to practical suggestions for group home professionals.

---

▲주제어(Key words): 아동공동생활가정(child group home), 시설장(director), 역할수행(role performance), 탐색연구(explorative study), 원가족(family of origin)

#### I. 서론

현대 한국 사회에서 가족원 간의 응집성이 약화되면서 가족 해체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요보호 아동도 증가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제2조)에 따르면, 요보호아동이란 보호자로부터 유실, 유기, 이탈되거나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처한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규정된다. 최근 한국의 요보호 아동을 위한 복지시스템은 대규모 집단 시설보다 가정과 같은 소규모 시설로 전환되고 있으며, 특히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주목하고 있다. 아동공동생활가정은 2004년에 아동복지시설의 유형으로 추가된 이래 현재 서울 63개소, 부산 29개소, 대구 15개소, 인천 13개소, 광주 26개소, 대전 17개소, 울산 7개소, 세종 1개소, 경기 123개소, 강원

22개소, 충북 23개소, 충남 21개소, 전북 44개소, 전남 34개소, 경북 11개소, 경남 26개소, 제주 5개소로 전국 480개소가 운영되고 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6). 아동공동생활가정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설장 1인과 보육사 2인이 5-7명 이내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파트나 단독주택과 같은 일반 거주 지역에 간판이나 표찰 없이 일반가정의 환경을 갖추어 운영되고 있다.

아동공동생활가정은 가족의 대안적인 형태로 탈시설화의 보호방식을 취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일반가정과 비슷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돕는 양육기능을 수행한다. 대규모 집단 시설보다 아동과 성인간의 심리적 거리가 가깝고, 아동을 위한 개별적 처

---

\* 본 논문은 2016년도 한국가정관리학회 공동춘계학술대회 포스터 발표를 수정·보완한 것임.

\* 본 논문은 인하대학교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This work was supported by INHA UNIVERSITY Research Grant).

\* Corresponding Author : Sungeun Yang, Department of Child Studies, Inha University, 100 Inha-ro, Nam-gu, Incheon 22212, Korea, Tel. +82-32-860-8117, Email: syang@inha.ac.kr

우, 개별적 공간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동의 독특성을 이해할 수 있고 정서적 지지가 가능하다(H. Kim, 2008; K. Son, D. Lee, & H. Yang, 2007). 공동생활가정의 생활을 통해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고 부모, 형제, 자매 관계 등에서 가족관계의 경험이 가능하다는 장점들이 있어 아동공동생활은 시설보호를 대체할 새로운 아동보호서비스체제로 주목받고 있다(S. Kim, & S. Cho. 2010; K. Son et al, 2007)

공동생활가정은 아동에게 단순히 숙식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긍정적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건전한 성장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한 대부분의 아동은 발달과정에서 부모의 이혼, 가출, 사망, 학대 등으로 불안정한 생활과 유기 및 방임과 같은 부정적 경험으로 인해 일반 아동에 비해 스트레스 수준이 높고, 정서 및 행동 문제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H. Kim, 2011; S. Kim, 2001). J. Choi and Y. Han(2013)은 학대 받은 아동은 정서를 상황에 맞게 조절하지 못하여 역기능적으로 반응함으로써 학대의 후유증으로 공격성이나 부적응 행동을 보이게 된다고 하였다. 공동생활가정 아동의 이런 부정적 경험을 극복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자존감과 같은 개인적 변인 뿐 아니라 원가족, 친구, 그리고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와의 관계를 들 수 있다(H. Kim, 2012).

선행연구들(S. Cho, 2009; H. Kim, S. Lee, J. Chun, & M. Bang, 2012)은 유사 가족의 기능을 수행하는 공동생활가정 내 지지가 아동의 심리적 건강성과 사회적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J. Kim(2014)는 공동생활가정 청소년들이 생활지도 교사(공동생활가정 종사자)와 맺는 애착에 주목하였다. 공동생활가정 청소년들이 생활지도 교사에게 안정적 애착을 형성하면 회복탄력성이 높아지고, 이는 또래관계를 개선시켜 학교적응과 문제행동의 감소로 연결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공동생활가정 아동이 종사자들로부터 긍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연구들과 달리 한편에서는 공동생활가정 종사자들의 어려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공동생활가정 종사자들의 소진에 관한 연구들은 입소 아동의 정서행동 문제가 종사자들의 직무만족도를 낮추며(Y. Park, 2014), 무기력이나 자괴감을 유발할 수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D. Lee, 2011). 또한 J. Kim and I. Chung(2015)은 공동생활가정 시설장의 높은 업무 피로도를 분석하면서 그 원인으로 시설장들의 역할정체성 및 역할과중을 지목하였다. 공동시설 아동이 친부모를 대치하는 존재로 시설장을 인식하면서 이들에게 높은 기대를 하는데, 이에 부응하려는

시설장은 과도한 부담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친부모 대신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이들을 돌보는 공동생활가정 시설장들이 아동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아직까지 이들에 대한 연구가 소수이며, 그나마도 소진이나 직무피로도 같은 변인에 한정된다는 점이다. 대안적 양육환경에 놓인 아동의 긍정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공동생활가정 시설장들의 관점과 경험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공동생활가정 시설장들이 아동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역할을 무엇으로 규정하고, 실제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며, 그 과정에서 아동의 원가족과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문제를 “아동공동생활가정 시설장의 역할은 무엇이고, 이를 수행하면서 아동의 원가족과 어떠한 경험을 하는가?”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아동공동생활가정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현장에 대한 이해

탐색적 질적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이 놓인 맥락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법적으로 공동생활가정의 유형은 개인 또는 법인(재단법인, 종교법인, 사단법인 등)으로 나뉘는데, 본 연구에는 모두 개인 시설의 시설장들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공동생활가정은 시설이라기보다 가정의 형태로서 아파트 밀집 지역 및 일반 주택가에 위치해 있었다. 대규모 집단 시설과 달리 공식적인 기관명이나 알림판을 표시하지 않았다. 알림판이 없는 이유는 사회적 낙인을 방지하여 거주 아동들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해당 공동생활가정들은 일반 가정과 유사한 25평 이상의 거주공간으로 방 3-4개, 화장실 2개, 거실, 부엌 등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다. 방 하나를 2명-3명의 아동들이 공유하며, 종사자와 같이 생활한다.

연구에 참여한 공동생활가정 아동들은 주로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생이었다. 연구에 참여한 공동생활가정 1곳(연구참여자 5)을 제외하고 모두 동일 성별로 구성되어 있다. 복층으로 이루어진 성별 혼합 가정에서는 1층과 2층을 분리하여 남녀 아동이 따로 생활하도록 공간을 분리하였다. 구체적인 정보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아동공동생활가정에서는 다른 시설(대규모 집단 시설, 지역아동센터 등)과 유사한 프로그램

을 진행하고 있었다. 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은 아동복지법 제31조에 의한 5대 의무교육, 자립생활지원, 여가생활지원, 지역사회 및 가족과의 유대관계, 사회적응, 정서안정 프로그램 등이었다. 5대 의무교육은 지역아동센터, 학교, 유치원(어린이집) 등과 마찬가지로 아동이 생활하거나 교육하는 시설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5대 의무교육의 내용은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실종, 유괴의 예방과 방지, 약물의 오남용 예방, 재난대비 안전, 교통안전이다. 자립생활지원 프로그램으로는 학습관리, 개인 위생관리, 건강관리, 식생활관리, 의생활 관리, 가사 관리 등이 실시되고 있었다. 자립생활지원 프로그램은 아동이 공동생활가정을 퇴소하여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지도하는 것이다. 여가생활지원은 공동생활가정의 종사자와 아동이 함께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사회적응 프로그램은 편의시설, 대중교통수단 등을 활용하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공동생활가정 내에서 친밀한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하여 원가족으로부터 부정적 경험을 했던 아동에게 정서안정을 제공해 주는 프로그램(생일파티, 외식, 가족여행 등)도 있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아동공동생활가정에서는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라 2016년 현재 종사자 3명(시설장 1명, 보육사 2명)이 아동 5-7명을 돌보고 있다. 종사자들은 행정업무, 아동의 학업관리 및 학교생활 관리, 프로그램 진행, 가사 및 식단 관리, 입·퇴소 관리, 퇴소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공동생활가정의 재정은 80% 이상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된다. 지원되는 재정은 복권기금으로

직무경력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급된다. 즉, 직원의 경력이 연봉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장기 경력자든 신입자든 동일한 연봉을 받게 된다.

2.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는 서울 및 경기 지역에서 아동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장 7명(여성 5명, 남성 2명)이다. 시설 변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개인 운영의 공동생활가정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자들은 공동생활가정 협의회를 통해 자발적 참여를 원하는 지원자를 모집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연령은 46세-59세의 범위이며, 공동생활가정 운영경력이 4년 8개월-9년 5개월이었다. 연구참여자의 특성은 <Table 1>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연구자들은 연구윤리를 준수하기 위하여 각 시설에 거주하는 아동에 대한 개별 정보를 밝힐 수 없다. 전반적 경향을 보면, 본 연구에 참여한 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한 아동들의 대부분은 부모의 이혼 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족 내 양육이 불가능한 경우였다. 특히 해당 아동들의 약 80%가 가정폭력에 의한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3. 자료수집

본 연구는 해석학적 인식론을 기반으로 한 질적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개별 심층면접법(individual in-depth interview method)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공동생활가

Table 1. Participant characteristics

| No | Sex | Area            | Age      | Child gender of the facility | Director career | Shift pattern of duties | Structure of facility  |
|----|-----|-----------------|----------|------------------------------|-----------------|-------------------------|--|
| 1  | F   | Seoul Guro      | 56 years | F                            | 7yrs 11ms       | residence               | 3bedrooms, 2bathrooms, livingroom, kitchen   |
| 2  | F   | Seoul Yangcheon | 59 years | F                            | 9yrs 5ms        | residence               | 3bedrooms, 1office, 2bathrooms, livingroom, kitchen  |
| 3  | M   | Gyeonggi Gunpo  | 48 years | M                            | 5yrs 2ms        | residence               | 3bedrooms, 2bathrooms, 1office, livingroom, kitchen  |
| 4  | F   | Gyeonggi Gunpo  | 46 years | F                            | 6yrs 5ms        | commute                 | 3bedrooms, 2bathrooms, 1office, livingroom, kitchen  |
| 5  | F   | Incheon Nam-gu  | 58 years | M & F                        | 9yrs            | residence               | Duplex type<br>1st floor- livingroom, kitchen, 2bedrooms, 1bathroom<br>2nd floor- 3bedrooms, 1bathroom |
| 6  | M   | Gyeonggi Uiwang | 46 years | M                            | 4yrs 8ms        | residence               | 2bathrooms, 1office, 1bathroom, livingroom, kitchen  |
| 7  | F   | Gyeonggi Yeosu  | 52 years | F                            | 8yrs 4ms        | residence               | 4bathrooms, 1office, 3bathrooms, livingroom, kitchen   |

정을 운영하는 시설장의 관점에서 아동과의 일상을 통한 경험을 반성적(reflective)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개방적이고 비구조화된 질문들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심층면접법은 기존 연구에서 소외되어온 연구참여자의 목소리를 경청하는데 효율적이다.

개별심층면접의 내용은 아동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게 된 동기, 근무환경과 제반 운영, 시설장의 역할, 아동과의 상호작용, 아동의 원가족과의 관계, 아동공동생활가정의 향후 발전방안 등으로 이루어졌다. 개별심층면접에 소요된 평균시간은 약 1시간이었다. 각각의 면접은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받아 녹음된 후 전사되었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월까지이다. 공동생활가정 협의회와의 협조를 받아 자발적 신청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개요를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았다. 자료수집은 아동이 등교한 시간 동안 연구자가 각 공동생활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였다. 질적연구의 삼각검증(triangulation)을 위해 심층면접 이외에도 추가 자료를 수집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현장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위해 시설간행물, 공동생활가정 협의회 홈페이지 게재정보, 보건복지부 평가자료 등을 보조 자료로 활용하였다.

#### 4. 자료분석

아동공동생활가정 시설장을 대상으로 한 개별심층면접 자료는 V. Braun and V. Clarke(2006)의 중심주제분석법을 참고하여 분석되었다. 중심주제분석법은 특정 현상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의 태도, 개념, 가치관 등을 도출하여 중심 주제를 발견하고 조직화하는 질적분석 방법이다. 중심주제분석은 특정 인식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근거이론이나 현상학적 접근과 달리 자유로우면서도 체계적인 분석 절차를 갖추고 있다. 귀납적 논리에 따라 반복되는 패턴을 찾아 기술하며 주제들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고 해석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연구참여자들을 심층 면접한 녹음파일, 전사본, 현장노트, 보조 자료 등이다. 연구자들은 연구참여자 각각의 사례에서 의미단위를 찾아내서 코딩하는 사례 내 분석을 먼저 실시한 후 전체 연구참여자들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는 사례 간 분석을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자들은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며 의미를 지닌 잠재적 코드를 도출하고, 코드들 간의 지속적 비교를 실시하였다. 다수의 코드는 공통성을 바탕으로 묶어서 12개의 범주로 목록화 되었다. 이후 범주들은 연구참여자들이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면서 겪는 핵심 경험 3개(시설장과 아동의 원가족 관계, 시설장의 역할수행,

공동생활가정의 발전을 위한 제안)로 유형화되었다.

전행적인 질적 자료분석법에 따라, 연구자들은 코딩 작업을 구체화하면서 참여자들이 사용한 생활세계의 일상적 용어(in vivo data)에 대한 해석을 실시하였다. 코드들 간의 연관성이 발견되면서 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내부자적(emic) 주제가 드러나면, 이에 대해 연구자들이 외부자적(etic)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V. Braun and V. Clarke(2006)을 참고하여, 연구참여자들의 핵심 경험이 갖는 의미와 이와 관련된 맥락적 조건이 함께 분석되었다.

#### 5. 연구과정의 검증(verification)

질적연구에서 타당성이란 관심 현상에 대한 연구참가자들의 경험이 온전히 반영되도록 적절한 분석과 기술이 이루어졌는지 검증하는 것이다(K. Ganeson, 2006). 본 연구자들은 분석결과에 대한 연구참여자 확인(member checking)을 실시하여 연구자-연구참여자 간 합의(consensus)를 획득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연구현장에 대한 관찰, 연구참여자들에 대한 개별 심층면접, 해당 시설에 대한 각종 자료와 정보 등을 수집하여 다양한 자료의 분석을 시도하였다. 끝으로, 소속 기관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의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였다. 연구참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자발적 참여와 동의를 문서화하고, 연구참여자가 제공한 민감한 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였다.

### III. 연구결과

본 연구에 참여한 공동생활가정 아동은 대부분 발달과정에서 부모의 이혼, 가출, 사망 등으로 원가족 내에서 돌봄을 받지 못했으며, 보호자로부터 유기, 학대, 방임을 경험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에 참여한 시설장들은 아동들이 친부모나 친인척에 대한 그리움과 기대를 갖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연구결과는 공동생활가정 아동이 원가족에 대해 갖는 기대와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현실, 그 사이에 공동생활가정 시설장의 역할이 규정되고 수행되는 것을 보여준다. 연구참여자들은 시설장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동공동생활가정의 발전을 위한 실천적 제안을 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Figure 1>로 도식화하여 나타낼 수 있다.

#### 1. 공동생활가정 아동의 원가족 관계

공동생활가정 아동은 친부모로부터 기본적 돌봄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아동들은 분노, 슬픔, 좌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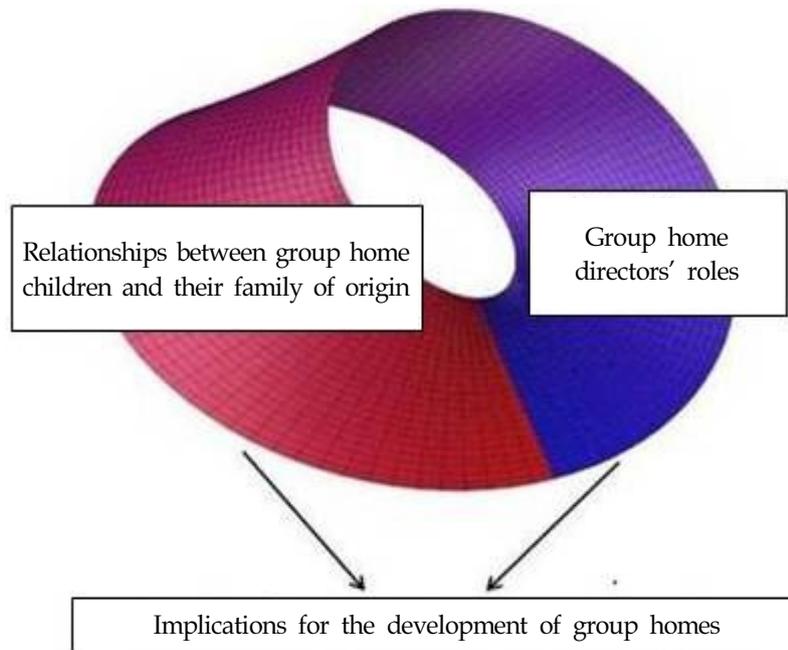


Figure 1. An exploratory analysis on the interviews with child group home directors

감 등을 경험하지만 여전히 원가족에 대한 기대를 유지하는 양가적 반응을 보인다. 연구에 참여한 공동생활가정 시설장들은 직접 양육하지는 않더라도 원가족들이 아동과 지속적인 유대를 맺는 것이 이들의 심리사회적 문제행동을 완화시키는데 핵심적이라고 주장하였다.

1) 부모의 기본적인 책임 불이행

공동생활가정 아동은 원가족 내에서 다양한 문제를 경험했다. 공동생활가정에 아동을 맡기는 부모에 대한 연구(H. Kang, C. Nho, J. Chun, & I. Chung, 2012)에 따르면, 이들은 알코올 및 도박 중독의 성향이 높고,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본 연구참여자들도 운영하는 시설 내 아동의 부모들이 경제적으로 열악하고, 사회적 자원이 부족하고, 부모의 기본적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우려하였다. 이들은 동거하지 않더라도 연락이나 방문을 통해 부모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방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편으로, 연구참여자들은 어떤 부모들은 비밀관적으로 불쑥 찾아와 자녀를 동요시키기도 하고, 공동생활가정 내 타 아동들에게 심리적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아이가 갑자기 수술을 받게 됐어요. 부모 동의를 필요해서 연락 드렸는데... 수술비가 30만원 정도 들었거든요. 아빠가 수술비 준다고 하더니만 그 이후로 연락이 끊겼어요. 편지도 쓰고, 문자

도 하고, 전화도 했는데, 결국엔 연락이 없더라고요. 사실 기대도 안했어요. 안타깝죠. (#2)

[나는 부모가] 연락을 안했으면 하고 바래요. 연락이 오면 애들 마음을 움직이는 게 좋지 않아요. 부모가 왔다가 가면 그 아이만 상처를 받는 게 아니에요. 다른 애들도 다 상처받아요. “제네 엄마는 왔는데 우리 엄마는 안 왔다”고 하거든요. 이게 상처예요. 부모랑 연계해서 빨리 가정에 복귀하기를 원하기도 하지만, 나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살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5)

2) 원가족에 대한 양가감정

공동생활가정에 거주하는 아동들 중 일부는 원가족과 정기적으로 만나지만 일부는 단절되어 살아간다. 공동생활가정 아동의 부모들은 대부분 역기능적이거나 미흡한 양육행동을 보이지만 아동들은 기본적으로 원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있다. 이러한 아동의 일반적 반응에 대해 한 시설장(#1)은 “피는 물보다 진하기 때문에”라고 설명하였다. 아동은 역기능적인 친부모에 대한 원망과 동시에 그리움이라는 양가감정을 다루어야한다. 이런 양가감정으로 인해 아동은 “한참을 방황하기도 하며(#4)” 혼란을 겪는다.

공동생활가정 시설장들은 아동에게 의지가 될 수 있는 원가족의 구성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였다. 그 대상이

친부모라면 바람직하지만, 조부모, 이모, 고모 등의 친인척이라도 아동에 대한 최소한의 애정과 책임을 갖는다면 자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아이가 고모가 시집가기 전까지 같이 살았어요. 지금은 결혼을 해서 같이 못살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아이 생일에 뭐 사주고, 졸업식에도 참석하고, 밥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저한테 연락해서 잘해주라고 하고... 지금 이 아이는 의지 할 때가 있는 거지요. (#7)

## 2. 공동생활가정 시설장의 역할수행

연구참여자들은 역기능적인 친부모와 이들을 그리워하는 아동을 보면서 그 사이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아동공동생활가정 시설장들은 다양한 위협에서 아동을 보호하고,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돌보며, 적절한 훈육과 대인관계 적응을 지원하며, 심리정서적 지지를 하는 존재로 자신을 규정했다.

### 1) 위협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역할

연구참여자들은 위협에서 아동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 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는 아동의 위험요소는 첫째, 부모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입소하는 경우, 둘째, 부모와의 갈등으로 입소하는 경우도 있다. 셋째, 친부모로부터 학대받은 아동이 입소하는 경우도 있다. 공동생활가정의 아동은 위협의 요소를 보호받기 위해 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게 된다. 연구참여자들은 위협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혼자 돌아다니고 부모가 돌보지 않는 그런 아이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됐어요. 혼자 돌아다니면서 동네에서 맨날 도둑질하고, 경찰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그 애들을 그냥 놔두서는 안되겠다고... 사회의 악이 되면 안 되잖아요. 자꾸 아이들만 눈에 보이고, 그 아이들을 방치해두면 안되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5)

아동들의 입소과정은 물리적, 환경적으로도 위험요소가 되지만 정서, 심리적 혼란도 위험요소가 된다. 한 연구참여자는 아동의 아버지의 문란한 사생활로 인해 아동이 상처를 받아 아버지에게 양육을 맡길 수 없어 자신이 키워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알고 보니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더라고요. 아이들이 말하기를 아빠가 여자를 막 데려와서 그 여자 보고 엄마라고 부르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개네들 하는 말이 자기들 너무 힘들었다고 아빠랑은 못 살 것 같다고 그래서 뭐.. 그냥 내가 키워야지 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로부터 위협하잖아요. 그땐 초등학교생이었는데 아이가 받을 상처를 생각하니 정말 맘이 아팠어요. (#1)

### 2) 양육자의 역할

연구참여자들은 아동의 생물학적 요구를 충족시키고, 잘못을 훈육하면서, 정서적 지원을 통해 변화시키려는 시도를 한다. 또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한다. 연구참여자들은 이를 양육의 역할로 설명하였다. 자신들이 수행하는 양육 역할이 아동들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고 믿고 있었다.

일반적인 가정에서도 애가 잘못하면 엄마가 야단을 하잖아요. 잘못했는데도 엄마가 아무 야단을 안 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나도 애가 잘못할 때마다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잘못하면 또 얘기를 하고, 또 잘하라고 하고... 특별한 건 없어요. 애들이 “삼촌, 삼촌” 하면서 따르죠. 애들이 저를 그만큼 믿고 신뢰하니까 삼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렇게 안 부르죠.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신뢰를 별로 없는 거예요. 제가 뭘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같이 사는 거지. 삼촌이라고 부르는 게 얼마나 친근감이 있어요? (#3)

연구참여자는 아동들에게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양육자의 역할을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학습지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장학사(후원자)를 연결해서 아동의 교육적인 면을 이행하고 있다고 한다.

처음에는 아이들한테 학습지를 시켜봤어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교대로 근무하면서 하기 어려워져서 결국 전체 아이들을 학원을 보내요. 고등학생인 큰 애가 학원비로 26만원을 내는데 다행히 장학사를 연결해서 돈이 안 들죠. 애들이 어릴 때부터 공부하는 습관을 붙여서 공부를 못하지 않아요. (#4)

또한 연구참여자는 기본적인 생물학적 욕구를 충족시켜

준다고 언급하고 있다.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에게 집과 식사를 제공해줌으로써 자신들의 양육자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친부모 대신 자신들이 양육자의 역할을 함으로 인해 아동들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어 간다고 믿고 있었다.

집은 있지만 갈수는 없고,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없고, 밥도 안 해주고... 제가 [부모 노릇을] 하니까 차츰차츰 아이들이 변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니깐 동네에서도 좋게 보기 시작했어요. (#5)

연구참여자는 아동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아동의 발달과정에 따라 어떤 행동을 하던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양육자의 역할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제가 이 나이에 좀 다양한 경험을 했어요. 삶과 죽음에 대해 다양한 경험을 했는데, 그냥 아이들의 모든 행동들이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일반적인 사고는 큰 사고라고 느껴지지 않는 거죠. 저는 아이가 오늘 내 곁에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정말 나가서 사람을 죽이지 않고, 크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 애가 뭘 하든 그게 커져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더라구요. 그렇지 않고 부모나 선생님들이 원하는 대로 이쁘게만 자라는 아이는 아이가 아닌 거잖아요. (#4)

### 3) 훈육자의 역할

연구참여자들은 아동학대법의 시행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중 일부 참여자들은 잦은 체벌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동을 양육하면서 문제행동을 바로잡기 위하여 체벌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체벌은 사랑이 전제되어 있다고 언급하였다. 하지만 아동학대법 때문에 공동생활가정에서 아동을 바로잡기 위한 사랑의 매가 학대로 변질되어 체벌이 필요할 때 체벌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옛날엔 때리기라도 했는데 지금은 못하니깐,, 그런데 가끔은 필요하지 않나요? 우리 자랄 때는 막 맞으면서 컸잖아요. 그래도 잘 자랐잖아요. 그게 부모가 나한테 미워서 그런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너무 그래요. 손바닥이라도 때리면 학대라고 하잖아요. (#7)

우리아들(아이)이 속 썩이는 것에 대해서는 사춘기를 맞이하여 엄청나게 속 썩이고, 이제는 뭐 애들이 신고한다는 소리들 하고 자기들한테 뭐 조금 잘못하면 밥이 허술하다는가, 선생님이 잘못을 했다든가, 이런 모습들을 보니깐, 아이들을 키워야 하나,, 하는 허탈함도 있죠. 옛날에는 때려서라도 키웠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거 안되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애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 할 때도 있어요. 가끔은 정말 그만두고 싶다고도 생각하죠. (#5)

### 4) 중재자의 역할

연구참여자들은 다수의 아동들이 한 시설 안에서 서로에게 적응하고 긍정적 관계를 맺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원가족으로부터 소외된 아동들이기 때문에 시설 안에서 또다시 부당한 처분을 받는다고 느끼지 않도록 노력한다. 대가족을 거느린 가정처럼 연구참여자들은 공정한 중재자이며 의사결정자로 자신의 역할을 설명했다.

중립 지키기가 힘들죠. 내가 낳은 자식 같은 때려서라도 진정을 시키는데... 양쪽 말을 다 들어보는데, 이 녀석이나 저 녀석의 편을 들 수 없는 입장이니까 제일 난처하죠. 또, 분명히 잘못된 녀석은 이 녀석인데도 다른 녀석 앞에 놓고 이 녀석만 야단을 칠 수도 없고... 그런 면이 굉장히 힘들겁니다. (#1)

연구참여자들은 아동들의 사이도 중재자 역할을 한다고 언급하였다. 같은 상황에 놓인 아동들에게 서로간의 애투함과 소중함을 배우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연구참여자의 중재자 역할의 중요성을 설명하였다.

큰애들 고2, 대학교 이런 애들은 서로 카톡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 밑에는 저희가 뭐 핸드폰도 다주고 그러지는 않지만 형제들 같이 뭐 애투하고 이런거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서로간의 애투함을 배우도록 계획하고 가르치고 하는 게 필요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어디 나가서도 서로 잘 지낼 것 같아요. (#3)

### 5) 지지자의 역할

연구참여자들은 자신들을 심리, 정서적으로 지지해주는 사람 그리고 자립을 지지해주는 사람으로 역할을 언급하였다. 아동들의 심리와 정서를 안정적으로 지지해주는 역

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아동에게 심리, 정서 지원을 가족과 같은 분위기 조성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아동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말도 정서적으로 안정된 역할을 한다고 언급하였다.

한 달에 한번은 아이들의 키와 몸무게를 늘 재요. 그리고 항상 노트에 기록해요. (중략) 그렇게 해서 그냥 아이들처럼 평상시 같이 이야기하고 가족같이 하면 크게 아이들도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2)

근데 애가 키가 안 커서 고민이 많았어요. 키가 168에서 멈춘거예요. 고2인데 그래서 제가 그냥 낯장겨서 괜찮아 라고 했죠. 그렇게 자신감을 불어 넣어 줘야하거든요. 그래야 애가 기죽지 않아요. 전 어디 가서 아이들이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3)

연구참여자들은 아동들에게 심리, 정서적 지원 즉 미술, 음악 치료 같은 지원을 연결해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자신들의 사비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비추었으며, 심리, 정서적 지원의 중요성도 언급하였다. 한 연구참여자는 “아동들이 정서적으로 몸과 마음이 건강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1)” 고 언급하였다.

음악 미술은 중앙 그룹홈에서 말썹꾸러기 같은 애를 감당 못해서 연결하나 해서 개만 채택이 돼서 개만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어요. 인천 아동복지센터라든가 그런 쪽에서 연계가 가능하면 정서치료, 심리치료 같은 거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이들한테 중요하거든요. 하루아침에 되진 않겠지만 계속적으로 연계를 해줘요. (#5)

또한 아동이 성인이 되어 퇴소하는 시점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공동생활가정을 떠나면서 성인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은 시설장 개인의 역량만으로는 부족하며 사회적 시스템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토로했다. 시설장으로서 양육자 역할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자신이 받는 평가는 결국 퇴소 아동의 자립과 맞물리기 때문이다.

그냥 밥만 먹여서 내보내는 그룹홈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기술을 배워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싶어요. 그냥 나이 먹으면 퇴소 하는 게 아

니라 아이들의 재능을 발견해주고 기술을 가르쳐주는 기관과 연계되는 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직업을 갖고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 받는 기관과 연계되었으면 좋겠어요. (#1)

나라에서는 그룹홈에서 퇴소하는 애들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만 19세 되면 퇴소를 해야 하는데 퇴소하면 갈 데가 없잖아요. (중략) 그 수급비 안줘도 중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급비 대신에 의료보험은 그냥 해주자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살면서 최고로 힘든 것이 뭐냐면 주거비, 의료비잖아요. 먹는 거야 뭐 어떻게 대충 먹어도 되는데 이 두 개가 되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두 개만이라도 아이들이 성장 할 때까지는 해줬으면 하는 거죠. (#6)

### 3. 공동생활가정의 발전을 위한 제안

연구참여자들은 공동생활가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시설을 세분화하여 특성화하고,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제고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 1) 공동생활가정의 특성화

현재는 단순히 아동의 연령이나 성별만으로 시설을 특성화하는 상황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아동이 지닌 어려움이나 특성 별로 시설을 유형화하고, 각 시설이 요구하는 특화된 역할을 수행하도록 시설장들이 전문화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토로하였다. 구체적인 예로, 사법형 공동생활 가정(소년원, 법원 등)이나 다문화 아동을 위한 공동생활 가정 등이 제시되었다. 공동생활가정을 유형화함으로써 각자의 특성을 가진 아동들이 공동생활가정 안에서 공통된 점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공동생활가정을 유형화 하였으면 좋겠다며 토로하였다.

사법형 공동생활가정(소년원, 법원)이라든지 하는 식으로 공동생활가정이 특색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다문화가정도 많이 있잖아요. 다문화 가정 아이들도 많은데, 다문화 공동생활가정은 없잖아요. 공동생활가정도 특색이 있는 곳이 되었으면 해요. (#2)

## 2)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전문화

연구참여자들은 시설장과 선생님의 전문화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아동들은 양육하고 훈육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동들이 심리, 정서적으로 필요한 것을 다른 사람의 손길이 아닌 현재 같이 사는 사람의 손길로 아동들을 치료하였으면 하는 바람을 비추고 있었다. 공동생활가정의 아동들을 양육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후원이나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여 아동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충족시켜 주고 원활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토로하였다.

아이가 여기 살 때 굶지 않고 제대로 된 교육 받고 그 정도만 제가 해주고, 나머지는 좀 더 전문성을 지닌 선생님이 공부를 좀 더 하고 연결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제가 여유가 있으니까 제 돈으로 애들 용돈도 주고 필요한 것도 사는데, 어디 가서 도와주세요 라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사실은 해야 하는 건데 아직은 그렇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뭐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거겠죠. (#4)

전문성 필요하죠. 일 년에 몇 시간 이라든지, 뭐 심리상담 같은 것 있잖아요. 우리 혼자 하기엔 한계가 있어요. 선생님들이나 시설장들도 심리치료도 필요한 것 같아요. 아님 지역별로 강의 듣고 어떻게 아이들을 상담하고 치료하는지 배우는 것, 그런거 필요하지 않을까요? (#3)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공동생활가정 시설장들이 아동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역할을 무엇으로 규정하고, 실제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며, 그 과정에서 아동의 원가족과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를 심층적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생활가정 시설장들은 물리적으로 부재하지만 심리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아동의 원가족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원가족이 아동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도 이행하지 않지만, 아동이 원가족을 그리워하는 점을 지적하였다. 공동생활가정 아동은 원가족으로부터 좌절을 경험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들을 그리워하는 양가감정을 가지고 있다. S. Kim, S. Song, J. Yoon, and N. Shin(2015)는 공동생활가정의 시설장과 아동들이 남남

에서 가족으로 맺어지는 과정을 통해 시설장이 대리부모 역할과 직업의 애매한 경계선에 서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아동이 원가족에 대해 이중적 감정, 즉 그리움과 실망감을 갖는 동시에 부모역할을 하지 못하는 친부모에 대한 갈등을 설명하였다. 이는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하는 유사한 논의로 평가될 수 있다. 공동생활가정 종사자들은 아동이 원가족에 대한 양가감정이나 갈등에 빠지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S. Kim et al.(2015)이 제안한 다양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나 종사자 교육 등의 적극적 지원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공동생활가정 안에서 시설장의 역할수행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공동생활가정 시설장들은 자신의 역할을 위협에서 아동을 보호하고,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정서적 지원을 하며 훈육과 교육을 제공하는 기능적인 양육자, 아동들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훈육자, 시설 안에서 서로에게 적응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맺도록 하는 중재자, 아동을 정서적으로 지지해주는 지지자로 규정하였다. S. Kim et al.(2015)의 연구결과와 같이 아동은 미성숙한 존재로 환경과 양육자에 따라 다양하게 성장할 수 있어 공동생활가정 시설장의 역할은 중요하다. 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게 되는 아동들의 경우 부모 이혼, 부모 1인 사망, 양친 사망, 또는 부모 학대로 들어오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H. Kang et al.(2012)의 연구에서도 대상자들 중 공동생활가정 아동들이 부정적 사건을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보고되었고 특히 부모의 알코올 중독, 가정 폭력, 성폭행, 성희롱 피해 경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공동생활가정 청소년에 대한 관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공동생활가정 아동은 부정적인 성장 및 발달사를 경험한 환경 속에서 심리, 정서적인 어려움을 가진 아동들이 건강함 삶을 살아 갈수 있도록 본 연구에 참여한 시설장들은 그들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아동들에게 부정적 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연구참여자들은 공동생활가정의 발전을 위한 제안으로 공동생활가정의 특성화와 종사자의 전문화를 언급하였다. 공동생활가정의 아동들은 각기 다른 부정적인 경험으로 입소하는데 아동들의 특성화된 공동생활가정도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공동생활가정의 종사자들은 인력부족과 업무과다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5-7명의 아동을 3명의 종사자가 24시간 상주하며 운영하는데 거주하면서 관련된 업무 뿐 아니라 아동의 보호, 훈련, 교육, 행정, 가사 등을 수행하는 업무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Y. Park, 2014; S. Song et

al., 2015). 또한 공동생활가정 아동의 경우 안정적인 가정 환경의 경험이 거의 없으므로 정서·행동 문제, 적응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종사자들은 늘 긴장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교육이나 훈련의 기회를 받아야(H. Kim, 2011)한다. 아동공동생활가정 종사자들에게 다양한 교육과 심리적, 정서적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제 공함으로써 아동들을 안정적으로 양육하려는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전문화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동생활가정 시설장이 수행하는 다양한 역할을 탐색하면서, 시설장들의 신체적, 심리적 소진을 감소시킬 수 있는 인력지원, 처우개선, 교육제공 및 휴가제도 등과 같은 다양한 지원체제와 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는 바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수도권 소재 공동생활가정 시설장으로 연구자를 한정하였다. 따라서 전국 공동생활가정 시설장을 이해하는 데는 다소 한계가 있다. 지역별로 운영상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지역별 비교를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보다 다양한 지역의 다수 시설장들을 연구참여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추후 연구에 반영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공동생활가정에 있는 시설장을 연구참여자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추후에는 공동생활가정의 종사자(선생님)의 경험도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종사자와 아동들간의 관계는 어떠한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셋째, 공동생활가정 시설장, 종사자, 아동, 아동의 원가족 간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살펴보는 추후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공동생활가정 시설장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이들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그 수행과정에 대해 조명한 것에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공동생활가정 시설장의 역할을 보다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REFERENCES

- Braun, V., & Clarke, V. (2006). "Using thematic analysis in psychology",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3, 77-101.
- Choi, J.-K., & Han, Y.-J. (2013). Comparative study of abused children and general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and emotion regulation.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31(3), 49-62.
- Ganeson, K. (2006). *Students' lived experience of transition in- to high school: A phenomenological stud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Queensland University of Technology, Brisbane, Australia.
- Kang, H.-A., Nho, C. R., Chun, J. S., & Chung, I. J. (2012). The relation between traumatic life events and depression and anxiety of adolescents in out-of home care: The moderating effects of protective factors. *Korea Journal of Youth Studies*, 19(30), 193-222.
- Kim, E. H. (2012). *The effect of art therapy on emotion regulation competence of group home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sei University, Gyeonggi, Korea.
- Kim, H. J. (2008). *A study on the delinquent adolescents recognized by students in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Unpublished master's thesis. Wonkwang University, Jeonbuk, Korea.
- Kim, H.-T. (2011). Longitudinal effects of social support, resilience and psycho-social adaptation of group home children. *Korea Journal of Youth Studies*, 16(3), 137-164.
- Kim, H.-T. (2012). Factors influencing resilience of group home children.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38, 211-234.
- Kim, H.-T., & Cho, S. S. (2009). Factors of social support that affect the adaptation of group home children. *Korea Journal of Youth Studies*, 16(3), 259-286.
- Kim, H.-T., Lee, S. C., Chun, J. H., & Bang, M. J. (2012). Factors relating group home family affecting psycho-social adaptation of group home children.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22, 1-22.
- Kim, J. H., & Chung, I. J. (2015).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attitude and psychosocial adjustment among adolescents in out-of-home care by the type of caregiver group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49, 25-55.
- Kim, J. M. (2014). *The relationship of school adjustment and behavior problems and attachment between group-home adolescents and care teach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gmoon Graduate School of Counseling Psychology, Seoul, Korea.
- Kim, S. J., Song, S. M., Yoon, J. E., & Shin, N. (2015). A qualitative study of group home directors' parenting experiences on a parent education program.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50, 247-277.
- Kim, S. K. (2001). *Study of psychosocial adaptation of adoles-*

- cents in group hom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Kim, S. M., & Cho, S. S. (2010). The adolescence's lived experiences of group home.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62(1), 31-53.
- Korea Council of Grouphome for Children and Youth. (2016). *Introduction of Grouphome*. Retrieved from [http://www.grouphome.kr/pages/page\\_88.php?act\\_module=board\\_board\\_2&sitem=title+like&keyword=2016&category=3&act\\_type=read&sn=8509&page=1](http://www.grouphome.kr/pages/page_88.php?act_module=board_board_2&sitem=title+like&keyword=2016&category=3&act_type=read&sn=8509&page=1)
- Lee, D. I. (2011). *A study on the job satisfaction of working-level employees in group hom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ty, Daegu, Korea.
- Lee, S.-H. (2015). *Phenomenological study of the experience of group art therapy group home youth*.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eungnam University, Daegu, Korea.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6). *Present condition of children's group home*. Retrieved from [http://www.mohw.go.kr/front\\_new/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1&CONT\\_SEQ=334115&page=1](http://www.mohw.go.kr/front_new/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1&CONT_SEQ=334115&page=1).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6). *The field of children's project information*. Retrieved from [http://www.mohw.go.kr/front\\_new/jb/sjb0406vw.jsp?PAR\\_MENU\\_ID=03&MENU\\_ID=030406&CONT\\_SEQ=330340&page=1](http://www.mohw.go.kr/front_new/jb/sjb0406vw.jsp?PAR_MENU_ID=03&MENU_ID=030406&CONT_SEQ=330340&page=1).
- Nho, C. D. (2013).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program to improve the self-efficacy and sociability of group home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Mokpo National University, Chonnam, Korea.
- Park, Y. H. (2014). *The influencing factors of child youth group home workers on job burnout and job satisfac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Baekseok University, Chungnam, Korea.
- Son, K. S., Lee, D. K., & Yang, H. S. (2007). Development of group play program for the social skills activity with group home children's. *Korean Journal of Clinical Social Work*, 4(1), 101-133.
- Son, S. M., Kim, S. J., Kim, M. J., & Cho, I. Y. (2015). A qualitative study on the parenting experience of group home director with adolescent. *Korea Journal of Youth Studies*, 22(8), 215-251.

Received: November 15. 2016  
 Revised: January 22. 2017  
 Accepted: February 20. 2017